

독자들 시선 끄는 서점 특설코너

도서진열 이벤트화한 적극적 판매방식으로 고객들 호응도 높아

하루에도 1백여 종이 넘는 도서가 출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서점들은 흘러 넘치는 정보를 제어하는 반면 독자와의 '얼굴 익히기'에 여념이 없다. 각급 서점이 단순한 도서 '상품 판매처'의 편협된 사고방식을 벗어나 '좀더 새로운 도서 진열'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특설코너의 존재는 곧 대형서점이 또 하나의 문화·정보매체의 장으로 자리매김 된다는 의미에서 출판문화와 유통에 긍정적인 작용하고 있다.

특설코너는 상설 진열대나 서고를 제외한, 서점에서 기획을 마련한 후 전시 판매하는 진열대를 말한다. 대형서점의 특설코너 등장은 매장 관리 측면에서 연구되었겠지만 표면적으로 살펴본다면 매장의 시각화를 통한 시선집중도모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서점들이 특설코너를 마련한 시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특설코너가 기획성을 갖게 된 것은 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한다.

시기마다 옷 갈아 입는 대형서점

올 한해만 하더라도 대형서점들은 각 시기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경쟁적으로 특설코너를 마련, 독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30일 재개장한 교보문고는 '환경도서 특설코너' '한가위에절도서 코너' '추리 SF소설 코너' '종교 특설코너' '광복절 기획도서' 등 6개월동안 20여개의 특설코너를 마련했으며,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고도서전'은 출판사 재고처리와 값싼 도서를 독자에게 선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풍문고 또한 '역사인물 특설코너' '국내 유명작가 특설코너' '80년~91년 연도별 베스트셀러 코너' '우리 고전을 읽자-미래를 향한 오늘의 고전' '미래학 특설코너-21세기 미래를 본다' 등 12개의 특설코너를 마련했다. 대형서점으로서 오랫동안 종로통의 안방마님을 자처하고 있는 종로서적의 경우도 '불황을 이기는 지혜 코너' '비즈니스맨을 위한 경제 경영 필독서' '당신의 운명은' 등을 비롯해서 20여개의 특설코너를 마련했다. 이들 서점보다 규모가 작은 서점들도 나름대로의 특설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을지서적의 경우를 보면 '연극영화 작품선' '마음의 양서'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전' 등 매주마다 특설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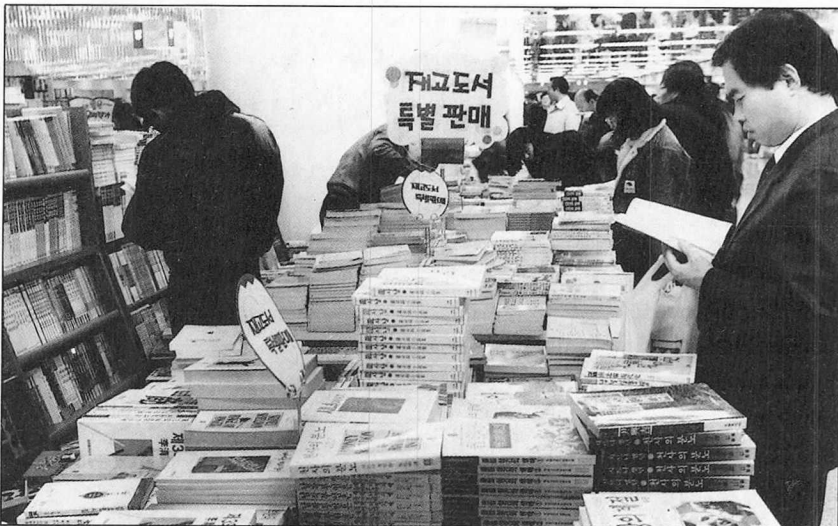
대형서점의 특설코너 설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계

절별로 설치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해독자들의 궁금증을 책으로 해소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들이다.

계절별로 보면 특설코너는 매년 겪는 연례 행사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신학기를 맞이하는 2~3월경에 마련되는 사전코너나 입학생 신학년생을 맞이하는 교양도서코너가 이에 속하는 것들이다. 또 여름 휴가철이 되면 바캉스, 여행, 취미도서를 한 곳에 모아 독자들의 눈길을 잡아 끌고, 가을이면 독서의 계절에 맞게 각급 문화단체의 추천도서코너를 특별히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선물용 도서를 전시, 판매하는 것도 계절별 특설코너의 한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특설코너의 성격을 갖는 것은 연례행사처럼 마련되는 계절별 임시 코너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매장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쌍방간의 문을 활짝 열고 손을 잡았을 때 대형서점들은 앞다투어 '중국관련도서전'을 펼쳐 보였는데, 독자들의 시사적 감각과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중국관련도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또 8·15를 맞이하면서 일제하의 한국 사회상 및 역사와 우리민족의 저항을 보여준 '광복 47주년 기념 특설코너'(영풍문고) 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열린 '역대 올림픽 관련 자료전' 10월 28일 휴거소통을 조망해 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이상 종로서적)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환경도서 특설코너'(교보문고) 선거시기를 맞이해서 각 후보의 정견을 살펴볼 수 있는 '선거의 모든 것' 임진왜란 4백주년기념 관련 서적을 모아 역사적 재조명을 시도한 '임진왜란 관련도서전'(영광도서)은 시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특설코너로 꼽을직 하다. 이처럼 대형서점의 특설코너 명칭만 살펴본다라도 올해의 큰 사건들을 독자들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사에 민감한 것이 특설코너의 특징이다.

각 서점의 상설코너 중에는 특설코너와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코너도 적지않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베스트셀러코너. 항상 많은 독자들로 붐비는 이곳 베스트셀러코너는 서점측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코너이기도 하다. 또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수필, 시, 문고본을 출판사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필은 14개 출판사, 시는 25개 출판사, 문고본은 18개의 출판사 도서



대형서점들이 계절마다, 시사적인 대형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의 기획을 실행 특설코너를 마련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종로서적이 권하는 문학도서 20선'(종로서적)과 '재고도서 특별판매전'(교보문고)

를 명패와 함께 진열하고 있으며, 소설은 이외 수, 이문열, 이청준, 박완서, 박범신, 김수현, 김홍신, 한수산, 최인호씨 등의 작품을 한 곳에 진열 판매하고 있다. 이와같은 진열대 마련에 대해 교보문고 광인수차장은 "어떤 유명세와는 상관없이, 출판사나 소설가들의 책이 많이 출판돼서 따로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특설코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양의 도서 종수가 구비되어야 한다. 영풍문고 홍보부장 양문길씨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책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독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특설코너는 "잡동사니만 모아놓은 또 하나의 매장"에 지나지 않는다.

생동감 있는 기획 필요해

따라서 서점측으로서도 특설코너를 마련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다. 대개 대형서점들은

매장관리자와 업무·홍보 담당자들의 회의를 거쳐 개설하는 것이 상례. 책선정도 이들이 모두 담당하게 되는데 컴퓨터 POS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는 서점은 책 선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지 못한 서점은 직원들의 기억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잔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의 대형서점과는 다르게 지방의 대형서점들도 나름대로의 특설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역의 지방색을 잘 드러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한다. 부산의 영광도서는 지역출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부산일보나 부산21세기 출판사에서 펴낸 도서를 중심으로 '부산의 책 코너'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코너에는 부산지역의 출판사 도서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출신작가들의 도서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영광도서 김윤환 사장은 '부산의 책 코너'에 대해 "지난 90년 처음 특설코너로 마련, 일정기간 후에 철거하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려 했지만 지역 출판인들이나 저자, 독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상설화시켰다"고 말한다.

대형서점이 특설코너를 마련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판매실적 제고라는 것이다. 서고에 꽂혀있는 것보다는 진열대에 책표지가 보이는 것이 잘 팔리고 같은 내용의 도서를 한 곳에 모아 '뭔가 있음직하게' 진열하면 두번 갈 독자의 눈길이 서너번 더 가게 마련. 분명 이러한 효과는 각 서점 특설코너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판매가 신장됐는지는 서점측에서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아직까지 진열대별로 판매 실적을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서점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특설코너에서의 판매량이 일반 서고에서의 판매량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의견을 털어놓는다.

도서 판매량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종로서적 국내서적부 김남식차장은 "대형서점의 특설코너는 일종의 적극적 판매방식"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잠재적 수요층까지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판매실적과 함께 서점의 이미지 혁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데서 대형서점들은 끊임없이 특설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대형서점이 넓은 매장을 활용, 연중무휴의 특설코너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매장 넓이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서점은 특설코너 설치를 함부로 계획할 수 없다. 서울의 신촌문고의 경우 현재 '직장인을 위한 코너'와 '재미있는 과학도서' '컴퓨터-베스트셀러 코너'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 번 만들어진 특설코너는 거의 상설화될 정도로 다른 기획을 다룰 공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 신촌문고 안성근과장은 "고객유치를 위해 대형서점과 같은 특설코너를 마련하고 싶지만 매장이 협소해서 고정된 구조를 변경하기가 어렵고, 시기에 맞게 책을 선별할 수 있는 일손도 모자라 특설코너 마련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사업성만 강조한 특설코너는 지양해야

특설코너가 딱히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을지서적 김영수홍보부장은 "서점측에서 양서라고 보기 어려운 책을 그 종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설코너를 마련, 판매할 경우 독자의 눈길은 당연히 이 코너로 몰리게 되고 약서도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를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점측의 특설코너 마련 1차

요인이 '판매량 제고'에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도솔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혜정씨(29)도 "같은 내용의 도서를 한 곳으로 집중시킴에 따라 도서를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보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획된 특설코너가 대부분 상업성에만 치우쳐 있어서 전문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대형서점의 특설코너 운영을 꼬집고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될 것은 도서 선택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독자들의 도서 선택 폭을 확장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계획을 갖고 서점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점의 벽에 걸려 있는 선전문구를 보고 그곳에 진열된 책이 양서인줄로만 믿는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김영수씨는 "서점의 사업성만을 위한 특설코너는 지양하고 책을 읽고 싶지만 그 선별안을 갖추지 못한 독자들의 충실한 안내인역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특설코너 운영 방향을 나름대로 피력한다.

특설코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유통과 정보전달에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따라서 특설코너가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장으로 기왕에 의도된 면이 있다면 특설코너에 진열된 도서목록을 서점에서 작성, 독자들에게 배포해 주는 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안내를 위해 종로서적에서는 「주간종로서적」이라는 소식지를 매주 발행 배포하고 있지만 이 소식지는 특설코너 소개라기 보다는 신간소개지적인 성격이 주가 되어 있다. 양문길씨는 "일본의 한 서점에서는 특설코너를 마련하면서 「Book Love」라는 소책자를 발간,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소책자에 제목과 함께 개략적인 도서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특설코너의 정보전달 측면을 더 강조할 수 있으며 독자들에게도 도서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서점마다 고민이기도 하면서 특설코너의 질을 좌우하는 도서선정도 출판협회나 도서윤리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성수 기자

지식산업의 파ioni어

컴피아트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